

(기말과제)원효철학의 통섭과 화쟁 논리의 독자성 고찰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신라 분황 원효(元曉)의 사상적 정수가 담긴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중심으로, 통섭(通攝)과 화쟁(和諍) 논리의 독자성을 인도 용수(龍樹)의 공(空) 사상 등과 비교 고찰하고, 나아가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논리가 원효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에 형상화된 인식 전변의 3단계를 통해 원효의 실천 철학인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의미를 융합적으로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세기 동아시아 불교계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관학의 공 사상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유식학의 가유(假有) 사상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대승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용수의 공 사상은 이론 중심의 틀에 서서 모순된 쟁론들을 철저한 부정을 통해 전회시키는 ‘회쟁(廻諍)의 논리’를 전개하였다.¹⁾ 반면, 원효는 현실의 쟁론과 차이들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허망한 것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 쟁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상호 소통시켜 조화로 이끄는 ‘화쟁회통(和諍會通)의 고유한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특히 원효는 용수의 공 사상이 지닌 부정성을 ‘일심(一心)’의 실천 원리와 결합시켰다. 그는 ‘언어 · 사유 · 욕구와 접촉해 있는 차이(相)’를 ‘동일성이라는 불변·독자의 본질 관념에 포획되어 왜곡·오염된 차별적 차이’와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난 사실 그대로의 차이’로 엄격히 구분하며 이를 ‘차이 통섭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²⁾ 이는 동일성의 환각 때문에 배타적으로 충돌하는 수많은 차이들을 파괴하지 않고 상호 개방(通)하고 수용(攝)하게 함으로써 호혜적 소통과 화해의 지평을 여는 원효 철학만의 독창성이다.

이러한 원효의 화쟁과 회통 논리는 그 사상사적 연원으로서 백제 혜균의 변증법적 사유체계와 깊이 맞닿아 있다. 혜균은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에서 소밀(疏密)과 횡수(橫豎) 등의 이원적 범주를 통해, 현실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난 자(自)와 타(他)가 서로 합일하고 변증법적으로 융합할 때 비로소 궁극적인 초월과 해탈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³⁾ 상대하는 두 법을 동시에 초극하면서 양자를 수평적으로 소통시키는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 구조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속제중도(俗諦中道)와 본각(本覺)의 원성실성(圓成實性)인 진제중도(眞諦中道)를 화쟁회통시켜 절대 평등과 현상 세계의 다양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비진비속 무변무중(非眞非俗 無邊無中)의 ‘무이중도(無二中道)’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였다.⁴⁾

이처럼 치밀한 이론적 교학은 구체적인 수행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데, 원효가 무이중도의 깨달음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행으로 제시한 ‘일미관행’은 『싯다르타』 주인공이 겪

1) 윤종갑, 「용수 공사상의 한국적 변용과 전개 -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제21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p272.
2) 박태원, 「원효와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 -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 『철학논총』 제104집, 새한철학회, 2021, p391.
3) 조운경, 「원효와 혜균의 만남과 대화 - 원효의 화쟁·회통에 보이는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 『불교철학』 제5집,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19, p71.
4) 조운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0.

는 3단계의 인식 전변(轉變) 과정과 완벽한 구조적 상응을 이룬다. 싯다르타의 인식 전변은 첫째, 현상 너머의 절대적 실재만을 추구하던 태도를 버리고 세상 모든 현상의 연기적 연결성을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에서 출발한다.⁵⁾ 둘째, 그는 관념을 넘어 감각적 세계로 뛰어들어 세속의 삶을 직접 겪으며, 타인의 어리석은 충동조차 역센 생명력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동체대비의 시선을 갖추는 '자각과 실천'의 단계를 거친다. 셋째, 마침내 강물 앞에서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등 수많은 대립적 소리들이 단일한 '옴(Om)'으로 수렴됨을 깨닫고 만물에 깃든 불성을 목도하는 '불이(不二)적 회귀'에 도달한다.⁶⁾ 싯다르타가 궁극적 귀일(歸一)을 이룬 표상인 '강'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相)과 차이를 맹목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일심과 진여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섭하는 원효의 일미관행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⁷⁾ 염정(染淨)과 진망(眞妄)의 이분법을 초월하면서도 세간 속에서 중생과 부처가 하나의 근원에서 공속(共屬)함을 체득하는 이 과정은 원효 통섭 철학이 지향하는 실천적 대승선의 문학적 체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단순한 주석서를 뛰어넘어, 인도 용수의 부정적 공 사상과 중국 삼론종의 무쟁(無諍)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혜균의 변증법적 융합을 계승·발전시킨 세계철학사적 금자탑임을 입증한다. 동일성의 폭력에 물든 차별적 세계를 치유하는 차이 통섭의 철학과, 싯다르타의 인식 전변을 통해 입증되는 일미관행의 실천적 합일은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현대 다원화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호혜적 공존의 보편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금강삼매경론, 화쟁과 통섭, 회쟁, 인식전변, 일미관행

5) 김수진, 「원효 '일미(一味)' 관점에서 본 『싯다르타』의 강: 인식 전변과 귀일(歸一)의 표상」, 『동서철학연구』 제118호, 한국동서철학회, 2025, p90.

6)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6.

7)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83.

1. 서론

1.1. 연구의 의의와 목적

7세기 동아시아 불교계는 인도에서 유입된 다양한 교학과 신·구 번역의 차이로 인해 사상적 혼란과 제(諸) 학파의 팽팽한 대립을 겪고 있었다. 특히 존재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실제성을 해체하려는 중관학파(中觀學派)의 공(空) 사상과, 현상적 인식 작용을 긍정적으로 규명하려는 유식학파(唯識學派)의 가유(假有) 사상 간의 쟁론은 당대 사상계가 직면한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다.⁸⁾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격변기 속에서 신라의 분황 원효(元曉, 617~686)는 특정한 종파적 독단에 매몰되지 않고, 대승불교의 핵심 교설들을 ‘일심(一心)’이라는 존재론적 근원 위에서 융합해 냈다. 그의 대표적 논서인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은 이질적인 교학들을 파괴하지 않고 상호 개방과 수용으로 이끄는 ‘화쟁회통(和諍會通)’ 및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을 완벽하게 집대성한 인류 지성사의 금자탑이다.⁹⁾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원효의 통섭과 화쟁 논리가 지니는 독자성(獨自性)을 인도 대승불교의 중관학을 확립한 용수(龍樹, Nāgārjuna)의 공 사상과 비교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대승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용수는 고정불변하는 자성(自性)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통해 모순된 쟁론들을 전회시키는 ‘화쟁(廻諍)’의 논리를 폈다.¹⁰⁾ 그러나 원효는 현실의 쟁론을 허망한 것으로 치부하여 파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쟁론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상호 소통시켜 조화로 이끄는 고유한 ‘화쟁회통’의 논법을 구축했다. 특히 원효는 언어와 사유의 한계 속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차이(相)’들을 ‘동일성이라는 환각에 포획되어 왜곡·오염된 차별적 차이’와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난 사실 그대로의 차이’로 엄격히 구분하였다.¹¹⁾ 그는 동일성의 잣대로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적 병합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차이들이 지닌 연기적 관계성을 회복하여 상호 호혜적으로 개방(通)하고 수용(攝)하게 하는 ‘차이 통섭의 철학’을 확립함으로써 용수나 중국 삼론학파의 부정적 논리를 넘어서는 독창적 사유를 성취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원효의 화쟁과 회통 논리가 어떠한 사상사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 백제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논리가 원효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원효와 지리적, 시기적으로 인접했던 혜균은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에서 소밀(疏密)과 횡수(橫豎)라는 이원적 범주의 교차를 통해, 현실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난 자(自)와 타(他)가 상호 만나 변증법적으로 융합할 때 비로소 궁극적인 초월이 성취된다는 사유체계를 제시했다.¹²⁾ 상대하는 두 법을 동시에 초극하면서 양자를 수평적으로 소통시키는 혜균의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 구조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의타기성의 속제중도(俗諦中道)와 본각의 원성실성인 진제중도(眞諦中道)를 화쟁회통시켜 ‘비진비속 무변무중(非眞非俗 無邊無中)’의

8) 정병삼, 「7세기 후반 신라 불교의 사상적 경향」, 『불교학연구』 제9호, 불교학연구회, 2004, p.36.

9)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1.

10) 고영섭,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화쟁회통학 - 의타기성의 속제중도와 본각의 원성실성의 진제중도의 화쟁회통을 통한 비진비속 무변무중의 무이중도 실현 -」, 『불교철학』 제18집,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6, p.103.

11)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1.

12)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1.

절대 평등인 무이중도(無二中道)를 확립하는 데 중대한 논리적 자양분으로 작용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치밀한 이론적 교학인 화쟁과 통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행으로 환원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금강삼매경론』의 핵심 종지인 '일미관행(一味觀行)'을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Siddhartha)』에 형상화된 주인공의 인식 전변(轉變) 과정과 교차 분석할 것이다. 원효가 강조한 일미관행은 사변적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眞)과 속(俗), 주(主)와 객(客)의 분별을 여의고 현실 세계의 차별적 상(相)들을 일심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살행으로 승화시키는 실천적 선(禪)이다. 이는 소설 속 싯다르타가 겪는 3단계의 인식 전변, 즉 현상 너머의 절대적 진리만을 추구하던 이분법적 관점을 버리고 현실의 조건적 발생을 긍정하는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1단계), 감각적 세계로 뛰어들어 중생의 어리석은 충동조차 역센 생명력으로 긍정하고 겨안는 동체대비의 '자각과 실천'(2단계), 마침내 강물 앞에서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등 수많은 대립적 소리들이 단일한 '옴(Om)'으로 수렴됨을 깨닫고 만물에 깃든 불성을 직면하는 '불이(不二)적 회귀와 귀일(歸一)'(3단계)의 서사 구조와 완벽한 사상적 상응을 이룬다.¹³⁾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원효의 사유 체계가 인도 용수의 공 사상을 넘어선 긍정적 차이 통섭의 철학임을 해명하고, 혜균의 변증법적 융합 논리와 사상사적 연속성을 구명하며, 나아가 싯다르타의 문학적 인식 전변 과정을 통해 원효 철학이 지향하는 실천적 귀일(歸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원효 철학이 인류 지성사에 던지는 보편적이고 치유적인 철학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2. 선행연구 검토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한 원효 철학의 고유성을 밝히려는 학계의 노력은 그동안 불교학, 동양철학, 그리고 문학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본 연구의 주제와 직결되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교학사상적 층위, 철학적 방법론의 층위, 그리고 실천적·문학적 비교 층위로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효의 공(空) 사상과 무이중도의 논리를 인도 대승불교의 근원인 용수의 중관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윤종갑은 용수의 공 사상이 중국을 거쳐 한국의 원효에 이르러 어떻게 주체적으로 변용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그는 용수에게 있어 공이란 주로 자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무자성(無自性)'의 의미를 띠고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승의제(공)를 다시 부정하는 파괴적 형식을 띠는 반면, 원효에게 이르러서는 공을 '일심(一心)'의 실천 원리와 연결시킴으로써 공이 단지 허무가 아니라 궁극의 깨달음인 무애(無礙)로 나아가는 긍정적이고 독창적인 교설로 확립되었음을 설파하였다.¹⁴⁾ 고영섭 또한 원효가 중관의 이제설과 유식의 삼성설을 유기적으로 통섭하여, 진제와 속제가 결코 둘이 아님을 역설하는 화쟁회통학을 정립했음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¹⁵⁾

둘째, 원효 철학의 방법론적 독창성을 '통섭(通攝)'이라는 현대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그 치유적 가치를 조명한 연구가 있다. 박태원은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일관되게 전개하는 핵심을 '차이 통섭의 철학'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원효가 인간의 언어·사유·욕구와 접촉해 있는 다양한 '차이(相)'들을 배제해야 할 망상으로 보지 않고, 불변적 실체라는 '동

13)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83.

14) 윤종갑, 앞의 논문(『한국철학논집』 제21집), p.272.

15) 고영섭,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18집), p.106.

일성의 환각'을 벗겨낸 '사실 그대로의 차이'로 회복시켰음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쟁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通)하고 수용(攝)하게 함으로써 호혜적 관계망을 구축하려 했던 원효의 논리가, 동일성의 폭력에 시달리는 다원화 사회를 구원할 궁극의 평화 철학임을 심도 있게 논증하였다.¹⁶⁾

셋째, 원효의 이러한 화쟁과 회통 논리가 형성된 사상사적 연원과 관련하여 백제 혜균의 사상과 연결 지은 획기적인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조운경은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에 나타난 소밀(疏密)과 횡수(橫豎) 등의 이원적 범주에 주목하여, 혜균이 대립하는 두 법의 상호 소통과 변증법적 융합을 통해 궁극적 절대경지를 형성하는 논리를 구사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혜균의 현실긍정적이고 변증법적인 사유체계가 원효의 무이중도 및 화쟁·회통의 논리 구조와 구조적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원효가 중국의 길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백제 혜균을 통해 삼론학적 변증법을 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였다.¹⁷⁾

넷째, 원효 사상의 실천적 지향점인 '일미관행(一味觀行)'을 문학 텍스트의 서사 구조와 접목하여 융합적으로 분석한 횡단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김수진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에서 주인공이 세계의 본질을 자각해 나가는 구도적 여정과 그 인식 전변의 과정을 원효의 '일미(一味)' 사상과 접목하였다. 특히 싯다르타가 이분법적 추구를 버리고 현실을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강(江)'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분별과 집착을 초월한 만물의 귀일(歸一)을 직관하는 3단계의 과정이, 차별상을 소멸시키지 않고 진여의 지평에서 역동적으로 포섭하는 원효의 일미관행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상응하고 있음을 훌륭하게 통찰해 내었다.¹⁸⁾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지니는 교학적, 철학적, 사상사적, 실천적 가치를 해명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개념(공사상, 통섭, 혜균의 영향, 싯다르타 비교 등)에 각각 독립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원효 사상의 기원(인도 용수의 부정의 논리 극복)에서부터 형성(백제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의 사상사적 수용)을 거쳐 그 독자성(차이 통섭의 긍정 철학 확립)을 규명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실존적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 체현(싯다르타의 인식 전변 3단계와 일미관행의 일치)으로 완성되는지를 통시적이지아 공시적으로 엮어내는 거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계승하여, 철학적 사유의 해체와 수용(용수와 혜균), 체계의 완성(원효의 차이 통섭), 그리고 문학적 실천(싯다르타의 3단계 인식 전변)이라는 융합적인 틀 속에서 『금강삼매경론』을 새롭게 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효의 통섭과 화쟁 철학이 고대 동아시아의 지엽적 교학 이론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실천적 구원의 보편 철학임을 종합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16)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2.

17) 조운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45.

18)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101.

2. 본론

2.1. 용수의 회쟁(廻諍) 및 삼론학의 무쟁(無諍)과 구별되는 원효 화쟁논리의 독자성

2.1.1. 대승불교 사상사의 전개와 쟁론(諍論)의 발생

7세기 동아시아 불교계는 인도에서 유입된 다양한 교학과 신·구 번역의 차이로 인해 사상적 혼란과 제(諸) 학파의 팽팽한 대립을 겪고 있었다. 특히 존재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실제성을 해체하려는 중관학파(中觀學派)의 공(空) 사상과, 현상적 인식 작용을 긍정적으로 규명하려는 유식학파(唯識學派)의 가유(假有) 사상 간의 쟁론은 당대 사상계가 직면한 가장 큰 철학적 난제였다. 진리의 두 가지 형식이자 붓다 교설의 핵심인 이제설(二諦說)과 존재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는 삼성설(三性說)은 이러한 대립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처럼 융합되기 어려워 보이는 모순과 충돌 속에서, 대승불교의 교학을 완성한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법론으로 이 쟁론을 종식시키려 시도했다. 인도의 용수(龍樹, Nāgārjuna)와 중국 삼론학파(三論學派)의 길장(吉藏), 그리고 신라의 분황 원효(元曉)가 제시한 사유 방식은 쟁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명확한 차이와 독자성을 띠고 전개되었다.

2.1.2. 용수의 회쟁(廻諍): 철저한 부정을 통한 실제론적 집착의 타파

인도 대승불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관학을 확립한 용수의 철학적 방법론은 철저한 부정을 통해 모순된 쟁론들을 전회시키는 ‘회쟁(廻諍)’의 논리로 요약된다. 용수에게 있어 공(空)이란 근본적으로 자성(自性)에 대한 부정으로서 ‘무자성(無自性)’의 의미를 지니며, 모든 사물과 현상이 불변하는 고유한 실체를 가진다는 실제론적 집착을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용수는 이론 중심의 틀에 서서 상대방의 주장이 품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귀류법(歸謬法)을 통해 스스로 붕괴하게 함으로써 쟁론 자체를 되돌려버리는(廻) 방식을 취했다.

용수의 회쟁 논리는 세속제(世俗諦)와 승의제(勝義諦)라는 이제설을 바탕으로, 세속적 차별상과 언어적 희론(戲論)을 철저히 부정해 나간다. 용수의 공 사상은 철저한 부정과 지양을 근간으로 하여 승의제마저도 다시 부정하는 파괴적 형식을 띤다.¹⁹⁾ 즉, 어떠한 긍정적 명제나 긍정적 실체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유와 언어가 빚어내는 동일성의 환각을 산산조각 내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러나 용수의 이러한 회쟁 논리는 대립하는 주장들의 한계를 폭로하고 무너뜨리는 데에는 탁월한 성취를 보였으나, 그 철저한 부정성으로 인해 후대의 학인들에게 종종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단명론적 허무주의, 즉 악취공(惡趣空)으로 오독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정을 매개로 진리에 도달하는 그의 논리는 대립을 파괴할 뿐, 긍정의 지평에서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통합적 사유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1.3. 삼론학파의 무쟁(無諍): 언어와 사유의 한계 비판 및 쟁론의 해체

용수의 중관 사상이 중국으로 전래되어 구마라집(鳩摩羅什)을 거쳐 길장(吉藏), 혜사(慧思) 등으로 이어지면서 형성된 삼론학파는 용수의 부정적 논리를 더욱 극단화하여 ‘무쟁(無諍)’의 사유체계로 발전시켰다. 길장 등은 현상 세계의 쟁론 자체를 무의미하고 허망한 언어적 유희, 즉 희론(戲論)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대립하는 이론이나 교설이 본질적으로 자성이 없는 공(空)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어떠한 주장도 참될 수 없다고 보아 쟁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쟁의 태도를 견지했다.²⁰⁾

19) 윤종갑, 앞의 논문(『한국철학논집』 제21집), p.299.

삼론학파는 진제와 속제를 각기 무(無)와 유(有)로 상정한 후, 그 둘 모두를 부정하여 ‘진제도 아니고 속제도 아님’이라는 불이중도(不二中道)를 성립시킨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론은 부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변증법적 구조, 즉 첫 단계에서 진(眞)으로 삼은 것을 다시 속(俗)으로 돌리고 또 다른 진을 내세우며 끝없이 부정을 거듭하는 파괴적 상향의 논리를 띤다. 그 결과 삼론종의 무쟁은 대립과 차이를 철저히 억압하고 소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적(靜寂)의 평등일 뿐, 살아 숨 쉬는 현실의 차이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조화시키는 능동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쟁은 쟁론을 회피하고 침묵함으로써 갈등을 덮어버리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2.1.4. 원효 화쟁회통(和諍會通) 논리의 독자성: 대립의 긍정과 상호 개방

반면, 신라의 원효는 용수의 회쟁이나 중국 삼론학의 무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독창적인 철학적 방법론인 ‘화쟁회통(和諍會通)’을 확립하였다. 원효 철학의 가장 위대한 독자성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쟁론과 교학적 차이들을 파괴하거나 허망한 것으로 치부하여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쟁론들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상호 소통시켜 조화로 이끄는 데 있다.²¹⁾ 용수나 길장이 파사(破邪)라는 ‘부정의 논리’를 쟁론 해소의 핵심축으로 삼았다면, 원효는 대립하는 학설들이 지닌 부분적 진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포섭하는 ‘긍정의 논리’를 축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원효 화쟁 논리의 심층에는 대립하는 개념과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독창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태원의 통찰에 따르면, 원효는 ‘언어 · 사유 · 욕구와 접촉해 있는 차이(相)’를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철저히 구분하여 파악한다. 하나는 ‘불변 · 독자의 본질이나 실제 관념에 포획되어 왜곡 · 오염된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성이라는 허구적 관념에서 벗어난 사실 그대로의 차이’이다.²²⁾ 용수와 삼론학파가 차이(相) 그 자체를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무조건적인 부정을 시도했다면, 원효는 인간의 경험 세계가 본질적으로 이 차이 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함을 직시했다. 따라서 원효는 동일성이라는 인지적 환각이 덧씌워져 서로를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차별적 차이’의 껍질만을 벗겨낸 뒤, 연기적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사실 그대로의 차이’를 회복시킨다. 나아가 이 회복된 차이들이 서로를 열어주고(通) 받아들이는(攝) 호혜적 평화의 관계, 즉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을 구축한 것이다.²³⁾

2.1.5.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화쟁회통학: 일심(一心)과 무이중도(無二中道)의 완성

이러한 원효의 화쟁회통과 차이 통섭의 철학이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교학적 건축물로 구현된 것이 바로 그의 대표적 논서인 『금강삼매경론』이다. 원효는 이 논서에서 존재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반야 중관(空性)의 이제설과 그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유가 유식(假有)의 삼성설을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두 극단적 교학을 ‘일심(一心)’이라는 근원적 지평 위에서 일미(一味)적으로 통섭하는 웅장한 화쟁회통학을 선보인다.

원효는 허망분별을 통한 망념인 유식의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중관의 속제(俗諦)로 배대하고, 이를 타파하여 드러나는 비로소 깨달아가는 시각(始覺)의 원성실성(圓成實性)을 진제(眞諦)로 배대한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변증법적 전개와 유사하다. 그러나 원효의 진정한 독창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속제를 버리고 진제를 드러내는 ‘견속현진(遣俗顯眞)’에 머무르지

20) 고영섭,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18집), p.101.

21) 고영섭,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18집), p.101.

22)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1.

23)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2.

않고, 오히려 획득한 진제를 다시 융합하여 속제로 삼는 ‘융진위속(融眞爲俗)’의 회통 논법을 전개한다. 즉,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속제중도(俗諦中道)와 본래적 깨달음인 본각(本覺)의 원성실성인 진제중도(眞諦中道)를 성립시킨 후, 이 둘을 다시 화쟁회통시켜 진(眞)도 아니고 속(俗)도 아닌 ‘비진비속 무변무중(非眞非俗 無邊無中)의 무이중도(無二中道)’를 완성한 것이다.²⁴⁾ 삼론학파의 불이중도가 속제(유)와 진제(무)를 부정하고 또 부정한 끝에 도달하는 이론적이고 정적인 경지라면, 원효의 무이중도는 진제와 속제의 대립을 파괴하지 않고 끌어안은 채 양자가 둥근 원처럼 끝없이 순환하고 융통하는 지극히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깨달음의 경지이다.²⁵⁾ 이 무이중도의 지평에서 공(空)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허무로 돌리는 파괴적 단멸이 아니라, 한계 없는 대자비의 작용이 흘러나오는 긍정적 묘유(妙有)의 모태가 된다. 결론적으로, 용수의 화쟁과 삼론학의 무쟁이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폭로하고 동일성의 환각을 부수는 ‘해체와 파괴의 논리’에 치중했다면, 원효의 화쟁회통은 부서진 파편들 속에서 연기적 사실을 끌어모아 대립을 소통시키고 만물을 일심의 근원으로 융합해 내는 ‘생명과 치유의 통섭 철학’이다. 대승불교의 모든 사변적 쟁론을 일심의 실천 원리(일미관행)와 결합하여 무이중도의 긍정적 교설로 확립시킨 것은 인도나 중국 불교 사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분황 원효만이 이룩한 세계철학사적 금자탑이자 신라 불교의 가장 찬란한 독자성이라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²⁶⁾

2.2.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 동일성의 폭력 극복

2.2.1. 원효 철학의 최상위 원리: 해체와 병합을 넘어선 ‘통섭(通攝)’

원효의 방대한 철학적 사유를 총괄적으로 엮을 수 있는 최상위 원리는 다름 아닌 ‘차이(相)들의 상호 개방(通)과 상호 수용(攝)’을 근원적으로 가능케 하는 ‘통섭(通攝) 철학’이다.²⁷⁾ 원효의 구도적 탐구 과정에서 형성된 이 통섭의 원리는 다양한 불교 해석학과 교학들에 대한 탐구를 총괄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주창한 일심(一心)은 통섭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지평’이며, 화쟁(和諍)은 통섭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사유 방법’이 된다.²⁸⁾ 특히 그의 사상이 집대성된 대표 저술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원효는 평생 숙성시켜 온 ‘상호 개방(通)’과 ‘상호 수용(攝)’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주의할 점은 원효가 구사하는 ‘통섭(通攝)’이 오늘날 흔히 쓰이는, 모든 내용을 억지로 하나의 동일자로 통합시키려는 폭력적 발상인 ‘통섭(統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²⁹⁾ 원효의 통섭은 동일성이라는 인지적 환각 때문에 배타적으로 격리되어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수많은 차이(相)들로 하여금, 서로 개방되어 상호 작용하며 호혜적 자리를 마련해 가게 하는 심오한 차이 치유의 통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⁰⁾

2.2.2. 차이(相)의 이중적 구조: 왜곡·오염된 차이와 사실 그대로의 차이

통섭의 철학을 전개하기 위해 원효는 인간의 경험적 토대인 ‘차이(相)’의 인식론적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차이(nimitta, 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이 차

24) 고영섭,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18집), p.131.

25) 김영미, 「『금강삼매경론』의 無二中道 사상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30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p.123.

26) 윤종갑, 앞의 논문(『한국철학논집』 제21집), p.273.

27)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2.

28)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2.

29)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3.

30)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3.

이는 언어·사유·욕구와 필연적으로 접촉해 있다.³¹⁾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을 관통하여 이 ‘언어·사유·욕구와 접촉해 있는 차이(相)’를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범주로 철저히 구분하여 고찰한다.³²⁾ 하나는 ‘불변·독자의 본질이나 실체 관념에 포획되어 왜곡되고 오염된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불변·독자의 본질이나 실체 관념에서 벗어난 사실 그대로의 차이’이다.³³⁾ 전자는 ‘동일성(同一性)의 환각에 오염된 차이’를 뜻하고, 후자는 ‘동일성의 허울이 벗겨진 변화와 관계망 속의 차이 현상’을 뜻한다. 감관 능력이 변화와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특징적 차이들을 접촉하는 것이 1차적 사태라면, 인간의 사유 능력이 그 차이들에 고정된 동일성을 부여하여 불변·독자의 실체를 설정하는 것은 2차적 사태이다.³⁴⁾ 원효는 인간의 무지와 번뇌가 바로 이 2차적 사태, 즉 차이에 동일성의 환각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통찰한 것이다.

2.2.3. 동일성의 환각과 배타적 폭력의 발생

언어와 사유를 통해 사물을 분류하고 인식하는 인간은 집요하게 대상에 ‘동일성’을 부여하려 한다. 동일하다는 것은 ‘변치 않음(불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음(순수)’, ‘상호 의존 관계가 필요 없음(독자적 실체)’을 의미한다.³⁵⁾ 즉, 동일성 관념은 본래 가변적이고 연기적(緣起的)이며 관계적인 속성을 지닌 현상들을, 불변하고 독자적인 절대적 실체로 착각하게 만든다.³⁶⁾ 이러한 동일성의 환각이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배제의 폭력’을 낳는다는 점이다. 동일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나 아닌 것’을 철저히 분리하고, 타자를 배제하며 억압해야만 한다.³⁷⁾ 원효는 이러한 ‘동일성에 오염된 차이(相)’야말로 독점, 배제, 억압의 폭력과 무지, 독단의 기만에 힘을 실어주는 차별적 차이라고 진단하였다.³⁸⁾ 서로를 밀쳐내는 자폐적 거주지들로 세계가 분할되고, 존재 차원의 왕래가 불가능해진 단절된 세상, 이것이 동일성이라는 개념 환각이 빚어낸 오염된 세계의 실상인 것이다.³⁹⁾

2.2.4.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 수용과 긍정적 차이 통섭(通攝)의 완성

이러한 동일성의 폭력을 치유하기 위해 대승불교의 선구자인 용수(龍樹)는 ‘공(空)’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모든 차이(相)와 자성(自性)을 철저히 부정하고 해체하는 회쟁(廻諍)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원효는 차이 자체를 파괴하거나 허망한 것으로 치부하여 무화(無化)시키는 부정적 방식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원효의 통섭 철학은 백제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사유체계와 깊은 사상사적 연속성을 맺으며 그 독자성을 꽃피운다. 원효와 시공간적으로 인접했던 혜균은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에서 소밀(疏密)과 횡수(橫豎)라는 이원적 범주의 교차를 통해, 대립적으로 나타난 자(自)와 타(他)가 서로 만나 변증법적으로 융합해야만 비로소 궁극적인 초월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⁴⁰⁾ 즉, 대립하는 두 법을 철저히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초극하면서도 수평적으로 소통시키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이다.⁴¹⁾

31)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07.

32)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0.

33)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5.

34)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03.

35)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4.

36)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4.

37)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02.

38)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0.

39)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7.

40)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41.

41)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0.

원효는 이러한 혜균의 긍정적이고 변증법적인 논리 구조를 사상적 자양분으로 삼아 화쟁과 통섭의 방법론을 완성해 낸다.⁴²⁾ 원효는 차이(相)에서 동일성의 의상(衣裳)만을 벗겨내어 '사실 그대로의 차이'에 접근하는 길을 연다. 동일성이라는 폭력적 실제 관념이 치유된 '사실 그대로의 차이'는 배제와 억압의 무기가 아니라, '개방 · 수용 · 공유 · 호혜(互惠)의 평화'를 구축하는 연기적 토대가 된다.⁴³⁾ 원효는 '일(一)'이라는 기호를 차이들에 대한 왜곡을 치유하는 '치유의 언어'로 구사한다.⁴⁴⁾ 진리(眞)와 세속(俗)이라는 차이들이 상호 배제적으로 격리되지 않고, 서로에게 열려 걸림 없이 오고 가고(通) 서로를 껴안는(攝) 지평, 즉 '한 것처럼 통하여 상호 개방하고 상호 수용하는 통섭의 세상'을 일군 것이다.⁴⁵⁾

2.2.5. 일미관행(一味觀行)과 싯다르타의 인식 전변: 치유와 귀일(歸一)의 실천적 체현

원효가 이론적으로 규명한 차이 통섭의 철학과 혜균적 변증법의 합일은, 사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수행인 '일미관행(一味觀行)'으로 귀결된다.⁴⁶⁾ 동일성의 환각을 벗어던지고 '사실 그대로의 차이'를 긍정하며 서로 개방하는 통섭의 실천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 주인공이 겪는 3단계의 인식 전변(轉變) 과정을 통해 문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체현된다.⁴⁷⁾

싯다르타의 여정은 동일성의 폭력과 분별을 해체하고 진정한 통섭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수행의 궤적이다. 첫째,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 단계에서 싯다르타는 여정 초기, 현상의 배후에 있는 불변하는 절대적 실재(동일성의 환각)만을 추구하고 개별적 차이 현상들을 기만적인 베일로 치부하고 배척했다.⁴⁸⁾ 이는 용수의 극단적 추종자들이 범하기 쉬운 단멸적 부정의 오류와 같았다. 그러나 붓다와의 만남을 통해 현상의 연기적 조건성을 자각하면서, 추상적 실체에 대한 고원한 지향을 버리고 현실 속의 '사실 그대로의 차이'를 대면하기 시작한다.⁴⁹⁾ 둘째, 자각과 실천의 단계에서 그는 관념의 성채를 벗어나 감각적 현실 세계로 뛰어든다. 방탕과 절망 등 세속의 삶을 몸소 겪으며, 싯다르타는 타인들의 어리석은 충동조차 역센 생명력으로 긍정하고 껴안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시선을 갖추게 된다.⁵⁰⁾ 이는 원효가 무상관(無相觀)을 통해 상(相)의 집착을 깨뜨린 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세간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함께 호흡하는 '무생행(無生行)'을 실천한 것과 완벽히 상응한다.⁵¹⁾ 진(眞)과 속(俗)의 대립을 넘어 속(俗)의 차이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는 혜균적 변증법의 역동성이 삶으로 구현된 것이다. 셋째, 불이(不二)적 회귀와 귀일(歸一)의 완성 단계에서 싯다르타는 마침내 강물 앞에 선다. 강물 속에서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나와 남이라는 수많은 차별적 소리들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소거하지 않은 채 얽혀 들어가, 마침내 단일한 '옴(Om)'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수렴됨을 직관한다.⁵²⁾ 현상계의 모순과 차이들이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폭력적 동일성을 벗어던지고, 불이(不二)의 자리에서 호혜적으로 공속(共屬)하게 된 것이다.⁵³⁾

이 싯다르타가 도달한 궁극의 '강'이야말로,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설파한 '일미(一味)'의

42)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42.
 43)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0.
 44)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1.
 45)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1.
 46)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5.
 47)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83.
 48)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0.
 49)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1.
 50)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6.
 51)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426.
 52)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6.
 53)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101.

완벽한 문학적 표상이다.⁵⁴⁾ 염정(染淨)과 진망(眞妄)이라는 이분법적 차이를 초월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엮매이지 않고, 대립하는 모든 차이(相)들을 억압 없이 상호 소통시키고 수용하는 ‘통섭(通攝)’의 지평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효의 차이 통섭 철학은 동일성의 폭력이라는 인류의 근원적 질병을 혜균의 변증법적 융합 논리로 치유하고, ‘깃타르타의 강’으로 상징되는 일미관행의 실천을 통해 만물을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회귀하게 하는 위대한 생명과 평화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2.3.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와 원효의 화쟁(和諍) · 회통(會通)의 구조적 상응

2.3.1. 혜균의 이원적 범주와 변증법적 사유체계

원효(元曉)가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전개한 화쟁(和諍)과 회통(會通)의 논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치열한 교학적 전개 과정 속에서 주체적으로 배태된 것이다. 특히 삼론종(三論宗)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무쟁(無諍) 논리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사상사적 배경에는, 그와 지리적·시기적으로 매우 인접했던 백제의 사상가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사유체계가 강력한 토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⁵⁵⁾

혜균은 그의 저술인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에서 대승경전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으로 소밀(疏密), 횡수(橫豎), 단복(單複), 쌍척(雙隻), 통별(通別) 등의 이원적 범주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⁵⁶⁾ 이 가운데 소밀(疏密)과 횡수(橫豎)의 개념은 대립하는 두 현상을 바라보는 혜균의 철학적 시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혜균에 따르면 ‘소(疏, 성김)’는 유(有)와 무(無)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다른 법 사이의 관계성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밀(密, 촘촘함)’은 하나의 법 내부에 범위를 한정하여 그것이 ‘있지 않음(不有)’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수직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⁵⁷⁾

중요한 것은 혜균이 이러한 이원적 범주들을 통해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위계적 구분을 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현실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난 자(自)와 타(他), 유(有)와 무(無)가 서로 만나 합일하여 변증법적으로 융합할 때 비로소 궁극적이고 완전한 초월인 해탈(解脫)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대립하는 두 법을 철저히 소거해버리는 길장의 방식과 달리, 양자를 동시에 초극하면서도 수평적으로 소통시켜 중도(中道)에 들어가게 하는 긍정적이고 변증법적인 논리 구조를 확립한 것이다.

2.3.2. 원효의 화쟁회통(和諍會通)과 혜균 변증법의 구조적 일치

이러한 혜균의 변증법적 사유체계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구사하는 화쟁 및 회통의 논리 구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원효의 화쟁은 단순히 이질적인 여러 견해를 물리적으로 적당히 혼합하거나 절충하는 것이 아니다. 원효의 방법론은 이질적인 글(文)들을 소통시키는 화쟁(和諍)을 거쳐, 같은 뜻(義)으로 모아들이는 회통(會通)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이 둘을 아우르는 화쟁회통(和諍會通)의 변증법적 상향을 이룩한다.⁵⁸⁾

이는 혜균이 소(疏)와 수(豎), 횡(橫)과 밀(密)이라는 이원적 축을 교차시켜 대립자를 합일시켰던 구조와 구조적 궤를 같이한다. 혜균이 두 가지 다른 법의 상호 소통과 변증법적 융합을 통해 궁극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처럼, 원효 역시 대립하는 학설들을 완전히 부정하

54)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83.

55) 조운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45.

56) 조운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46.

57) 조운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47.

58) 고영섭,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18집), p.106.

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긍정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소통시키고 융합하여 궁극의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식을 취했다. 상대하는 두 법을 동시에 초극하면서 양자를 수평적으로 개방(通)하고 수용(攝)하는 원효의 차이 통섭 철학은 혜균의 변증법적 융합 논리가 한 차원 더 높은 대승적 화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⁵⁹⁾

2.3.3. 무이중도(無二中道)의 실현: 대립의 쌍조(雙照)와 차이 통섭

원효와 혜균의 이러한 사상사적 상응은 『금강삼매경론』의 핵심 교설인 ‘무이중도(無二中道)’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입증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중관의 이제설(二諦說)과 유식의 삼성설(三性說)을 화쟁회통하여 진제(眞諦)와 속제(俗諦)가 결코 둘이 아님을 역설한다. 원효는 허망분별을 통한 망념인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속제를 버리고 진제를 드러내는 ‘견속현진(遣俗顯眞)’의 방향으로 화쟁의 논리를 편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각(始覺)의 원성실성(圓成實性)인 진제를 다시 융합하여 속제로 삼는 ‘융진위속(融眞爲俗)’의 회통 방법으로 나아간다. 나아가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속제중도(俗諦中道)와 본각(本覺)의 원성실성인 진제중도(眞諦中道)를 화쟁회통시켜 마침내 ‘비진비속 무변무중(非眞非俗 無邊無中)의 무이중도’를 정립한다.⁶⁰⁾

이 무이중도의 경지는 이제(二諦)가 양변을 완전히 부정하여 완전한 평등과 무차별을 실현한 절대경지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현상 세계(속제)의 차이(相)들을 평등하게 구현하는 지극히 역동적인 지평이다. 혜균이 대립하는 법들이 합쳐져 일시에 궁극적인 절대경지를 형성하면서도, 유무(有無)와 같은 상대 개념이 평등하게 짝을 이루어 현실 세계에서 자유자재한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⁶¹⁾ 결국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한 차원 높게 심화시킨 원효의 화쟁회통은, 모든 대립을 긍정의 지평에서 쌍조(雙照)하는 위대한 차이 통섭의 결실인 것이다.

2.3.4. 변증법적 융합의 실천적 체현: 일미관행과 싯다르타의 귀일(歸一)

이론적 교학으로서의 화쟁회통과 변증법적 융합은 사변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적 수행으로 환원되어야만 그 참된 가치를 발한다.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확립한 실천 수행인 ‘일미관행(一味觀行)’은 바로 이 변증법적 융합이 실천적으로 체현되는 과정이며, 이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 주인공이 겪는 인식 전변의 3단계를 통해 문학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입증된다.

싯다르타의 여정은 혜균의 소밀(疏密)과 횡수(橫豎)가 교차하듯, 그리고 원효의 진속(眞俗)이 화회하듯 전개된다. 첫 번째,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 단계에서 싯다르타는 절대적 진리(진제)만을 좇으며 현실(속제)을 기만적인 것으로 배척하던 극단적 태도를 버리고, 현상의 연기적 조건성을 경이롭게 긍정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자각과 실천의 단계에서는 관념의 세계를 떠나 속세의 삶 속으로 뛰어든다. 중생의 어리석은 탐욕조차 생명력으로 꺼안는 이 과정은, 원효가 진제에 머물지 않고 속제를 융합하여 속제중도로 나아간 ‘융진위속(融眞爲俗)’의 역동적 변증법이 삶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진속불이(眞俗不二)의 무생행(無生行)을 실천함으로써 대립자를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는 동체대비의 시선을 갖춘 것이다. 세 번째, 불이(不二)적 회귀와 귀일(歸一)의 완성 단계에서 싯다르타는 마침내 ‘강물’ 앞에 선다. 싯다르타는 강물 속에서 흐르는 수많은 차별적인 소리(기쁨과 슬픔, 선과 악)들이 서로를 소거하지 않으면서도 변증법적으로 융합하여 단일한 ‘옴(Om)’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수렴됨을 깨닫는다. 이것은 혜균

59)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1.

60) 고영섭,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18집), p.131.

61)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0.

이 말한 대립자들의 상호 합일이자, 원효가 도달한 ‘비진비속 무변무중의 무이중도’의 완벽한 문학적 형상화이다.

‘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별적 차이(相)들이 고유성을 잃지 않은 채 동일성의 폭력을 벗어 던지고 하나의 근원에서 공속(共屬)함을 직관하는 이 순간, 싯다르타는 만물에 깃든 불성을 목도한다. 이는 쟁론(諍論)을 파괴하지 않고 끌어안아 융합하는 화쟁회통의 논리가 실천의 영역에서 ‘일미(一味)’라는 한 맛으로 귀일하는 웅장한 깨달음의 성취이다. 결론적으로, 백제 혜균의 변증법적 사유가 제공한 사상사적 토대 위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원효의 통섭과 화쟁 철학은, 싯다르타의 인식 전변을 관통하는 ‘강물’처럼 인류의 대립과 갈등을 영원히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보편적 지혜의 생명수라 할 것이다.⁶²⁾

2.4. 싯다르타의 3단계 인식 전변과 원효의 일미관행(一味觀行)

2.4.1. 이론적 회통에서 실천적 관행(觀行)으로의 전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원효는 인도 용수(龍樹)의 철저한 부정적 회쟁(廻諍) 논리와 중국 삼론학의 파괴적 무쟁(無諍)을 넘어서서, 대립하는 차이(相)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는 화쟁회통(和諍會通)과 차이 통섭(通攝)의 철학을 확립하였다. 나아가 이는 백제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무이중도(無二中道)라는 절대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경지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이론적 교학은 구체적인 수행의 실천으로 체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념적 유희에 머물고 만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의 궁극적 종지를 ‘일미관행(一味觀行)’으로 규정하며, 존재의 본래 모습인 일심(一心)으로 귀환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적 선(禪)을 역설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원효의 일미관행이 지니는 실천적 역동성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싯다르타(Siddhartha)』의 주인공이 겪는 인식 전변(轉變)의 3단계 서사 구조를 통해 문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입증된다.⁶³⁾ 싯다르타가 이분법적 추구를 버리고 현실을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강(江)’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분별과 집착을 초월한 만물의 귀일(歸一)을 직관하는 과정은, 혜균의 변증법적 융합을 계승하여 현상의 차별상을 소멸시키지 않고 진여(眞如)의 지평에서 역동적으로 포섭하는 원효의 일미관행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2.4.2. 제1단계: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과 무상관(無相觀)

싯다르타의 인식 전변 1단계는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이다. 여정의 초기, 싯다르타는 현상 세계의 배후에 고정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나 실재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개별적 현상과 현실의 삶을 단지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배일(환영)로 치부하며 배척하였다.⁶⁴⁾ 이는 불교 교학적으로 볼 때, 현상을 맹목적으로 부정하고 단멸적인 허무주의(惡趣空)나 고원한 이상주의에 빠지기 쉬운 초기 구도자의 인식론적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고타마 붓다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과에 의해 조건적으로 발생(연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현상 너머의 초월적 실재라는 환각적 지향을 버린다.

이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의 「무상법품(無相法品)」에서 불변·독자의 본질이나 실체로 차별된 차이(相)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기 위해 제시한 ‘무상관(無相觀)’의 논리와 부합한다. 무상관의 방편관(方便觀)은 처음 관을 수행할 때 모든 유(有)의 상(相)을 깨뜨려 환화(幻化)의 상에

62)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4.

63)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83.

64)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0.

집착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⁶⁵⁾ 싯다르타가 추상적 이념을 좇던 시선을 거두고, 만물이 끊임없이 조건 지어져 생멸하는 현실 그 자체의 '사실 그대로의 차이'를 직시하며 자득의 길로 나아간 것은, 원효가 동일성의 환각을 벗겨내는 관행(觀行)의 출발점과 그 궤를 같이한다.

2.4.3. 제2단계: 자각과 실천, 그리고 무생행(無生行)의 진속불이(眞俗不二) 인식

전변의 제2단계는 '자각과 실천'의 단계이다. 관념의 성채를 무너뜨린 싯다르타는 철저히 세속적인 감각의 세계(Samsara) 속으로 뛰어든다. 그는 방탕과 탐욕, 절망과 같은 세속적 삶을 몸소 겪으며 타락하는 듯 보이지만, 이 치열한 체험을 통해 마침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된다. 타인들의 어리석은 충동과 욕망조차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역센 생명력의 발현으로 긍정하고 끌어안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시선을 획득하는 것이다.⁶⁶⁾

이 과정은 원효가 「무생행품(無生行品)」에서 설파한 '무생행(無生行)' 및 대승보살의 역동적 실천행과 완벽히 상응한다. 원효는 진리(眞)와 세속(俗)을 분리하여 진리에만 안주하는 것을 이승(二乘)의 한계로 비판했다. 그는 세 가지 해탈을 지닌 관(觀)으로써 삼계가 공(空)한 것을 보는 경지에 들어갔으나, 그 증득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속세와 관련된 마음을 일으켜 생멸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참된 보살의 길이라 역설했다.⁶⁷⁾

즉, 싯다르타가 세속의 진흙탕 속에서 중생의 맹목적 삶마저 긍정해낸 것은, 원효가 '진제를 융합하여 속제로 삼는(融眞爲俗)' 역동적인 속제중도(俗諦中道)를 통해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이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 지점이다. 이는 대립하는 자(自)와 타(他)가 서로 만나 합일하여 변증법적으로 융합해야만 진정한 초월이 가능하다는 혜균의 긍정적 변증법이 싯다르타의 실존적 삶으로 온전히 체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4.4. 제3단계: 불이(不二)적 회귀와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완성

싯다르타의 구도적 여정은 마침내 '강물' 앞에서 제3단계인 '불이(不二)적 회귀와 귀일(歸一)'로 완성된다. 강물 속에서 싯다르타는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나와 남이라는 수많은 차별적 소리들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소거하지 않은 채 얽혀 들어가, 마침내 단일한 '옴(Om)'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수렴됨을 직관한다.⁶⁸⁾ 현상계의 온갖 모순과 대립적 차이들이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폭력적인 동일성에서 벗어나, 불이(不二)의 자리에서 호혜적으로 공속(共屬)하게 됨을 깨닫는 위대한 순간이다.

이 싯다르타가 도달한 궁극의 '강'이야말로, 원효가 설파한 '일미(一味)'의 완벽한 문학적 표상이다.⁶⁹⁾ 원효의 '일미관행'은 염정(染淨)과 진망(眞妄)이라는 이분법적 차이를 초월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얽매이지 않고, 대립하는 모든 차이(相)들을 억압 없이 상호 소통시키고 수용하여 하나의 마음(一心)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강물 앞에서 만물에 깃든 부처(佛性)를 목도하는 싯다르타의 각성은, 차별상(相)을 단순히 부정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여(眞如)의 지평에서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수용하는 원효 일미관행의 궁극적 도달점과 일치한다.⁷⁰⁾

2.4.5. 차이 통섭의 실천적 치유

65) 김영미, 「원효 수행 관법에 대한 연구 - 『금강삼매경론』의 무상관(無相觀)과 삼공(三空)을 중심으로 -」, 『한국불교학』 제100집, 한국불교학회, 2021, p.95.

66)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6.

67) 박태원, 「원효의 선(禪)사상 -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 『철학논총』 제68집, 새한철학회, 2012, p.32.

68)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96.

69)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83.

70)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101.

결론적으로, 싯다르타의 3단계 인식 전변 과정은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확립한 화쟁과 통섭의 철학이 어떻게 실존의 영역에서 작동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절대적 진리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방편관), 세속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맹목적인 생명력마저 자비로 끌어안으며(무생행), 마침내 모든 대립이 하나로 융합하는 ‘옴’의 강물(일미관행)에 도달하는 서사는, 혜균의 변증법적 융합 논리를 넘어선 원효의 ‘무이중도’가 단순한 교학적 사변이 아님을 철저히 증명한다.

분별과 집착을 탈피한 열린 경지에서 세계를 본래적 인식으로 관조하고 그것을 최종적인 불성(佛性)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이 과정은, 동일성의 폭력에 신음하는 세계를 치유하고 현실의 한복판에서 부처와 중생이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귀일하게 만드는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생명 철학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신라 분향 원효(元曉)의 사상적 정수가 담긴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중심으로, 그가 전개한 통섭(通攝)과 화쟁(和諍) 논리의 독자성을 인도 용수(龍樹)의 공(空) 사상 등과 비교 고찰하고, 백제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논리가 미친 사상사적 영향,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에 형상화된 인식 전변의 3단계를 통해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실천적 의미를 융합적으로 조명하였다.

첫째, 원효의 화쟁회통 논리는 인도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진 용수의 회쟁(廻諍)이나 중국 삼론학 길장(吉藏)의 무쟁(無諍)이 지닌 ‘부정과 해체의 논리’를 극복한 독창적 사유체계이다.⁷¹⁾ 용수가 이론의 철저한 부정을 통해 자성(自性)의 허구를 타파하려 했다면, 원효는 대립하는 여러 쟁론들을 허망한 것으로 치부하여 파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포섭하는 길을 열었다. 원효는 언어와 사유에 덧씌워진 ‘동일성의 환각’을 벗겨냄으로써 독단과 배제의 폭력을 치유하고, 연기적 관계망 속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차이(相)들을 상호 개방(通)하고 수용(攝)하게 하는 ‘차이 통섭의 철학’을 완성하였다.⁷²⁾

둘째, 이러한 원효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통섭 철학은 사상사적으로 백제 혜균의 변증법적 논리와 깊은 구조적 상응을 이룬다. 혜균이 소밀(疏密)과 횡수(橫豎)라는 이원적 범주의 교차를 통해, 대립하는 두 법을 일방적으로 소거하는 대신 수평적으로 소통시키고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곧 궁극적 해탈임을 역설했듯이, 원효는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심화시켰다.⁷³⁾ 원효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융합하는 속제중도와 진제중도를 거쳐, 마침내 양변을 초월하면서도 현상 세계의 다양성을 평등하게 구현하는 비진비속(非眞非俗) 무변무중(無邊無中)의 무이중도(無二中道)를 확립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치밀한 교학적 체계인 화쟁과 통섭은 관념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일미관행’이라는 구체적인 실존적 수행으로 완성되며, 이는 『싯다르타』 주인공이 겪는 3단계의 인식 전변 서사로 생생하게 입증된다. 절대적 진리만을 좇던 지향에서 벗어나 연기적 현실을 긍정하는 ‘지향에서 자득(自得)으로의 전환’(1단계), 감각적 세속에 뛰어들어 중생의 맹목적 생명력마저 자비로 껴안는 ‘무생행(無生行)의 실천’(2단계), 그리고 마침내 강물 앞에서 온갖 대립적 소리들이 단일한 ‘옴(Om)’으로 융합함을 깨닫는 ‘불이(不二)적 회귀’(3단계)의 과정은 원효의 실

71) 윤종갑, 앞의 논문(『한국철학논집』 제21집), p.272.

72) 박태원, 앞의 논문(『철학논총』 제104집) p.391.

73) 조윤경, 앞의 논문(『불교철학』 제5집), p.71.

천 철학과 완벽히 궤를 같이한다. 싯다르타가 증득한 ‘강’의 깨달음은 곧 차별상을 소멸시키지 않고 진여(眞如)의 지평에서 역동적으로 포섭하여 부처와 중생이 하나의 근원으로 공속(共屬)하게 하는 일미관행의 문학적 체현이다.⁷⁴⁾

결론적으로, 분황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7세기 동아시아 지성계가 마주했던 형이상학적 대립을 ‘일심(一心)’의 바탕 위에서 융합해 낸 세계 철학사의 금자탑이다. 동일성의 폭력에 물든 차별적 세계를 치유하는 차이 통섭의 철학과, 싯다르타의 인식 전변을 통해 현실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일미관행의 역동적 합일은 맹목적인 종파주의와 이분법적 대립으로 고통받는 현대 다원화 사회에 진정한 화해와 호혜적 공존의 보편적 패러다임을 제시해 준다.

74) 김수진, 앞의 논문(『동서철학연구』 제118호), p.101.